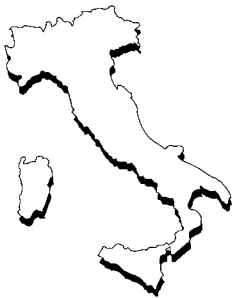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ESCO사업 동향 다가오는 국제적 성공 기회

이 보고서는 전미 ESCO협회(NAESCO)의 연차총회에 참석한 국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나라별 시장 동향에 관한 보고서는 NAESCO와 IEA를 통해 매년 말에 작성될 예정이다(편집자註).

■ 이탈리아

페르난도 사보라나
기업법률 전문가, TIESCO, Ltd



이탈리아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정부 주도하의 독점 및 집중 관리를 뒤로 하고 가스 및 전력 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단일 전력회사는 2003년까지 해당 국가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할 수 없다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2001년 5월,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와 가스에 관한 2가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는 탄소 배출량 억제 및 에너지 교역과 관련된 그린인증서의 발행과 협상에 관한 폭넓은 지침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될 에너지 효율 목표에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에너지 절약전문기업들(ESCOs)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에게는 향후 5년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에너지 법령 시행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소비의 연간 최소 감소량

2002년	0.10Mtep/a
2003년	0.50Mtep/a
2004년	0.90Mtep/a
2005년	1.20Mtep/a
2006년	1.60Mtep/a

1998년 이탈리아는 약 8000조 BTU(1BTU=252cal)의 에너지를 소비했으며 이 중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에너지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6350만 kw의 전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 온실가스효과, 교토협약 등은 ESCO에게 큰 성공의 기회 제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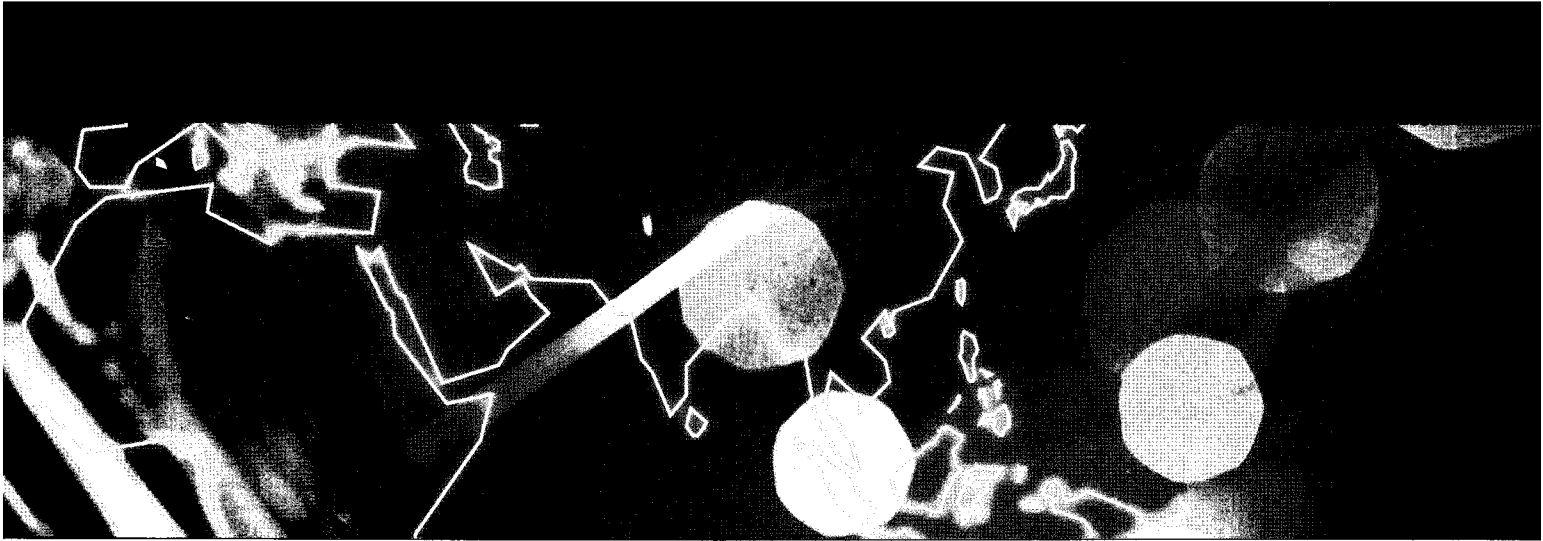
2000년도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시간당 2977억 kw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이는 1999년도의 시간당 440억 kw와 비교해 5.6% 늘어난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종 연구서와 보고서 및 분석에 의하면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에서 이탈리아 내 에너지 비효율성의 수준은 두 자리수 범위의 퍼센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과거 에너지 관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 즉 정부 독점 하에 있던 ENEL의 공급자 중심 관리에서 부분적으로 기인되었으며 결국 신기술 도입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환경문제, 온실가스효과, 교토협약 등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에너지 절약전문기업들(ESCOs)에게 크나큰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로화의 사용은 유럽회원국간의 합의된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경제에 관한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감소법안은 여러 다른 방면으로 이러한 범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에너지 소비 감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급자



중심관리를 소비자 중심 관리로 전환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2개의 법령처럼 필수적인 법령의 제정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 감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필수 법령의 제정 앞당길 것

물론 이탈리아 정부의 많은 행정 부문과 경제 부문은 이미 분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으로의 책임 이전은 지방 자치 단체를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해 더욱 예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자금과 환경오염감소에 대한 권리주장 가능성 및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수입 화석 연료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 전략적인 이유로 이러한 의존도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광범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및 폐열발전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효율증진에 관련된 기술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정치인들이 환경문제와 관련된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므로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들은 향후 선거운동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기관들도 에너지 절약과 청정에너지 시장을 새롭고 흥미있는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또한 비준, 검증, 인증 절차 및 규약들은 이미 널리 시험 운용된 바 있으며, 이제는 폭넓게 알려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반 조건에 따라 TIESCO S.p.A 사는 지방정부에 에너지 절약과 수요자 중심관리 투자계약의 기술을 갖춘 지방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SUPERESCO)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사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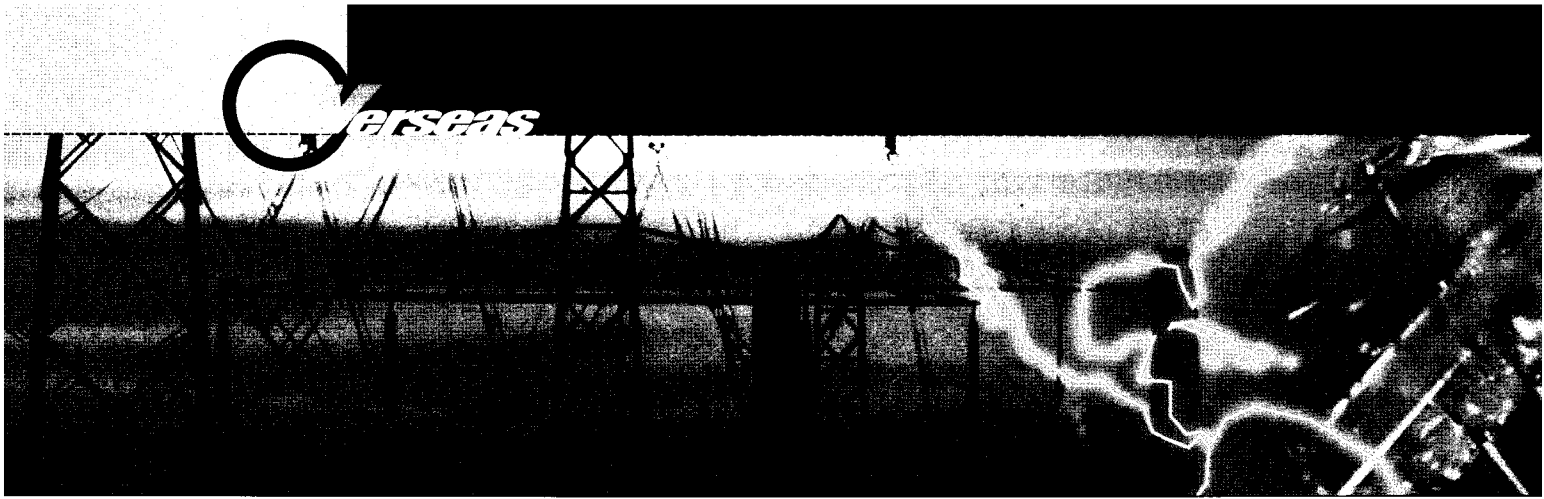
각각의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SUPERESCO)은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파트너 역할을 하며, 지방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해 계획된 인센티브

및 재정 프로그램 하에서 공공기관, 기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 고객과의 에너지 절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공하는 기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정기반에 기초한 지방 공공단체와의 에너지 효율증진 프로그램 도입
- ② 공공단체와 기업체의 실질적 필요에너지 생산량 산출 (분담량 감소)
- ③ 신뢰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기업체의 효율적 컨소시엄 구축
- ④ 에너지의 합리적 생산과 분배를 고려하여 각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공공 단체사이의 에너지 요구량 통합
- ⑤ 그린인증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조달하기 위한 전체 에너지 절약 실적의 확보
- ⑥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교역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 ⑦ 에너지 구매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에너지 분배 프로그램의 개발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SUPERESCO)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의해 다루어지는 각 사업의 엔지니어링과 설비계획에는 참여치 않는다.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주된 목적은 공동의 목표, 효율성,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단체들을 하나의 우산 아래 파트너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각 지방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해 계약된 대부분의 기술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증대



시키는데 있다.

슈퍼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팽창하는 이탈리아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여겨진다.

■ 멕시코

모니카 페레즈(Monica Perez)

온실가스저감 기술협력 시범 사업부(TCAPP), 국내 담당자

제니 레노(Jeannie Renno)

미(美) 재생에너지연구소, 환경사업계획 담당자



미국 정부는 1997년 온실가스저감 기술협력 시범 사업(TCAPP)에 착수하였다. 이는 국제 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서 기술 이전시행에 관하여 국가 주도적이면서 시장연관적인

접근모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美)재생에너지연구소는 미 에너지 성(USDOE), 미 국제개발기구(USAID), 미 환경보호 기구(USEPA)의 자금지원 하에 온실가스저감 기술협력 시범 사업(TCAPP)연구를 조율하고 있다.

TCAPP팀은 현재 브라질, 중국, 이집트, 카자흐스탄, 멕시코, 필리핀, 한국 등의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자국 경제발전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협력기술개발계획(CTIP)을 통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와도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 기업들과

지원단체들도 이러한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기술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의 가능성 또한 온실가스저감 기술협력 시범 사업(TCAPP)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 이집트,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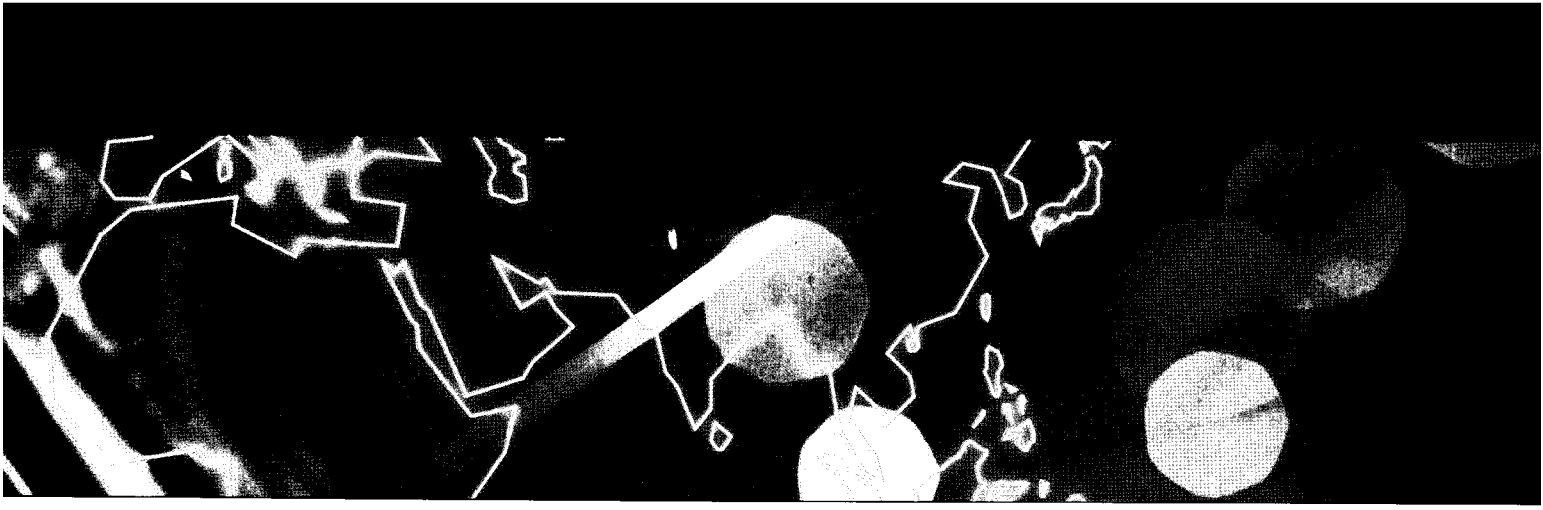
멕시코에너지절감위원회(CONAE)는 국가생태학연구소(INE), 멕시코에너지부(SE), 전기에너지절감신용기금(FIDE), 태양에너지협회(ANES) 등의 기구를 망라하는 멕시코 TCAPP팀을 이끌고 있다. 멕시코 TCAPP팀은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근에는 미국 TCAPP팀과 함께 광범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시행하고 있다.

TCAPP 사업팀의 노력은 멕시코 정부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분야 사업계획에 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주요 발전목표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속적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에너지절약사업안의 지속적인 홍보로 최종 에너지소비자와의 논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에너지절약시장 개발의 초기 목적은 멕시코 내에서 에너지절약기업전략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필수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업협력을 통해 멕시코 내(內) 새로운 공공부문 및 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공헌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단기목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이런 최초 단계를 통하여 8개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멕시코 에너지절감위원회와 멕시코 TCAPP사업팀은 키타나루 호텔협회(Cancun소재)뿐만 아니라 멕시코기업협회(CONCAMIN), 멕시코철강협회(CANACERO) 등 국내 중추 산업의 대표기구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왔다. 이러한 토



의는 꼬아우일라주(Coahuila 州)와 칸쿤주(Cancun 州) 사이에 공동사업을 조직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예상되는 에너지절약사업의 결정 및 발전을 위해 호텔 분야와 산업분야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자와의 보다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상호 작용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덧붙여 멕시코 에너지절약위원회와 멕시코 TCAPP사업팀은 꼬아우일라주(Coahuila 州) 내의 여러 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에너지절약사업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국내의 ESCO들의 회의 구성, 현장방문 뿐만 아니라 최종 에너지소비자와의 논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 차례의 논의와 12번의 현장방문 후에 멕시코 TCAPP사업팀은 총 73개 팀의 에너지 최종소비자들과의 직접접촉을 성사시켰으며 이 중 30개 팀은 에너지절약사업의 이점과 사업 잠재력 평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 결과, 현재 3개의 호텔(Krystal, OMNI, Presidente)과 몬테레이(Monterrey) 시내 두 곳의 산업시설(Torres Mexicanas, Inmagusa)에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서던컴퍼니에너지솔루션(Southern Company Energy Solutions), LLC와 쉰프라에너지솔루션(Semptra Energy Solutions) 등을 포함한 몇몇 멕시코 국내의 ESCO들은 이러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휴관계 구축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결과와 국내의 기업들의 참여가 청정에너지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

꼬아우일라주(Coahuila 州) 내의 산업시설 2곳과 칸쿤주(Cancun 州) 내의 호텔 1곳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는 에너지소비 관련 자료가 제시되었다. 2001년 7월에 실시된 사업설명회는 여타 호텔과 산업시설 관리자들에게의 홍보를 위해 국내의 여러 ESCO들의 공동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또한 몬테레이(Monterrey) 시내 산업시설 현장방문이 8월

말로 잠정 협의됐으며 멕시코 국내의 ESCO들이 사업 참가를 위해 이곳에 초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은 2개 생산시설과 1개 호텔에서 2천4백만 불(약 288억원) 이상의 잠재투자기회와 함께 매년 2만4천 톤 이상의 탄소배출감소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5개의 산업시설과 호텔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계획 중에 있다.

멕시코는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결과와 국내의 기업들의 참여, 즉 기업부문, 비정부기구, 공공부문, 그리고 투자기관의 참여가 청정에너지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는, 정치 경제면에서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멕시코 에너지절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높은 처리비용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참여를 망설였던 국제 ESCO들은 멕시코 내 ESCO와 제휴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멕시코 ESCO들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에너지절약기업들은 멕시코 내 에너지시장상황과 사업관행을 이해하고 있는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 인도

토마스 케이 드리센(Thomas K. Dreessen)
EPS Capital Corp, 대표이사



인도는 최근 100기가와트(GW)의 전력 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는 국가경제발전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관계자들 모두는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변환, 수송, 유통, 그리고 활용의 효율성 증진이 국가생산성 뿐만 아니라 경쟁력과 고용창출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에너지와 환경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적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이점들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정부기관과 산업단체들은 다각적 양자간 대기기구의 협조아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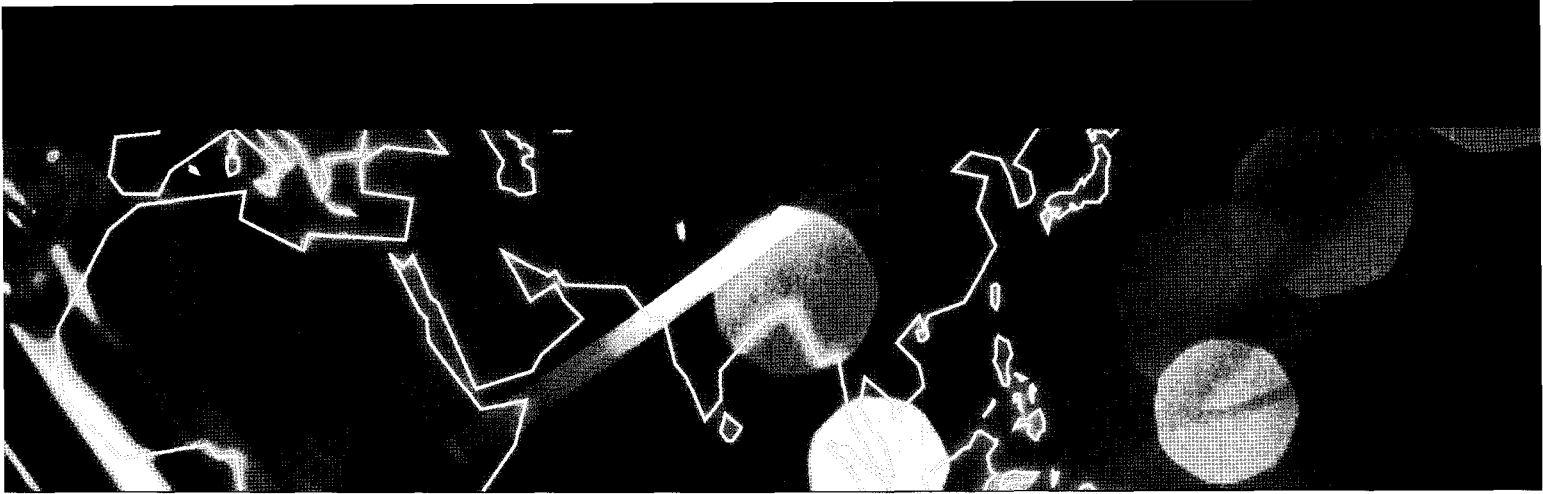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효율증진사업(Energy Efficiency Projects, EEPs)에 활동 중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수는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나는 1996년 Themax사와의 제휴를 통해 Thermax Energy Performance Services Limited(TEPS)를 설립한 바 있으며, 이 회사는 지금 인도 내에서 종합적인 계약 모델 하에 운용되는 최대규모이자 유일한 ESCO다. 그러나 최대규모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TEPS사는 올해 겨우 5백만 불의 실적을 올렸고, 이는 현재 '인도 내 에너지 절약사업의 시장이 얼마나 협소한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몇몇 설비기업들이 양적으로는 TEPS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그 중 어떤 기업도 TEPS사만큼 다양한 상품과 기술을 접목시킨 성과 중심적인 에너지효율증진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전망을 볼 때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인도 내에서 ESCO에 의한 에너지효율증진사업의 발전요건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비교적 안정적 경제기반을 갖추고 있음
- ② 중앙정부가 다소 불안정하지만, 민주적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③ 충분한 재정 및 사업 하부구조가 구축되어 있음

- ④ 에너지효율설비구축에 대한 세금인하책 등의 합리적인 과세정책이 마련되어 있음
- ⑤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⑥ 협상 및 계약에 긍정적인 법적 시스템(시행은 잘 안됨)
- ⑦ 에너지소비자들에게 에너지효율기술과 상품, 그리고 설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다수의 산업단체 보유
- ⑧ 에너지효율성의 잠재력과 관련기술 보고서들에 관한 연구가 에너지 효율증진사업의 실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⑨ 많은 대기업과 소비자들은 에너지비용을 조절하고 절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⑩ 에너지 효율증진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에너지 소비자들의 관심 및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재정투자를 제공하는 ESCO기업 보유의 필요성 및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⑪ 서구기술도입의 의지는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운용상의 위험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성과보증을 제공하는 ESCO기업 보유의 필요성 및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이와는 반대로 인도 내 ESCO들이 에너지 효율증진사업을 대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몇몇 에너지절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신뢰성 확보 위해서는 더 많은 ESCO의 시장진출 필요



현재 인도는 에너지효율문제를 사업문제가 아니라 공장기술자나 연구원들이 다루는 기술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사업주들도 장기 투자비용절감을 고려하기 보다는 에너지절약설비구축비용 자체의 최소화를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의 경영인들은 에너지 효율증진사업 수행기반의 적절한 발전과 투자유발을 위해 요구되는 ESCO들의 에너지투자등급 회계보고서 양식에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에 많은 회계보고서들이 허술하게 작성되었으며, 이 때문에 ESCO들은 경영주와의 신뢰성 결여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에너지효율관련기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은 에너지 최종소비자의 기술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다수의 인도 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신기술 도입에 최초로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생산시설 경영자들은 에너지 효율증진사업의 시행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생산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인도 내 에너지 사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 분야이며, 현존하는 기업문화나 경제기반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효율증진사업(EETP)의 개발비용은 지역ESCO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에너지효율증진사업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어렵다. 게다가 투자요청이 없는 투자지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ESCO에 의해 실시되는 에너지절감사업을 감독하고 입증하는 표준화된 계약이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기관들은 절대로 ESCO 자체와의 사업계약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1980년대 미국에서 에너지 절약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TEPS팀에 의해 몇몇 에너지절약사업이 성공적

으로 유치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산업 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ESCO의 시장진출이 필요하다.

■ 일본 및 한국

질문 1.



향후 12개월간이 한국과 일본의 ESCO에게 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에 이 지 와 타 나 베 (Eiji Watanabe)
일본 에너지보호국 이사

정부가 다른 단체들에 의한 환경친화적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달 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4월을 기점으로 발효된 이 법률은 정부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중 '에너지회계'는 '필수이행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개별행정단체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영
SK주식회사, ESCO사업팀 부장

개발도상국인 한국에서, 학교나 공공 건물 내의 전구를 고효율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또한 수요중심관리가 에너지절감, 특히 수요조절, 냉동보관시스템, 전압제어분야에서도 핵심적인 논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증

후군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건립의 어려움이나 심야전력의 무용성 등의 이유로 전력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절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기모터분야에서 가변전압·가변주파수(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VVVF)의 적용은 이제 일반화될 것이다.

질문2.

어떤 점에서 소비자들이 에너지효율성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에이지 와타나베(Eiji Watanabe)

소비자들은 최소수준의 에너지소비보다는 돈 자체를 절약한다는 데에 관심이 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최진영

절감된 에너지소비량으로 에너지 절약부분을 평가하고 이 수치를 소비자 설득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난방연료를 디젤에서 액화천연가스로 바꾸는 것은 대기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에너지 효율성증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질문3.

지난 1년간 정부부문이나 공공사업에서 에너지효율 대책의 시행을 촉진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가?

에이지 와타나베(Eiji Watanabe)

오사카시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할당된 에너지 절약계약을 기초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도입했다.

최진영

상대적으로 이율이 짝 정부기금이 50% 가까이 증대되어 총 7000만불(약 840억)에 이르고 있는데, 오직 ESCO만이 이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에너지절약기업의 수가 160여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질문4.

현재 해당국가의 주요시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라.

에이지 와타나베(Eiji Watanabe)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현재 주요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 에너지 보호국이 ESCO는 아니기 때문에 성공적 수행 사례는 있다고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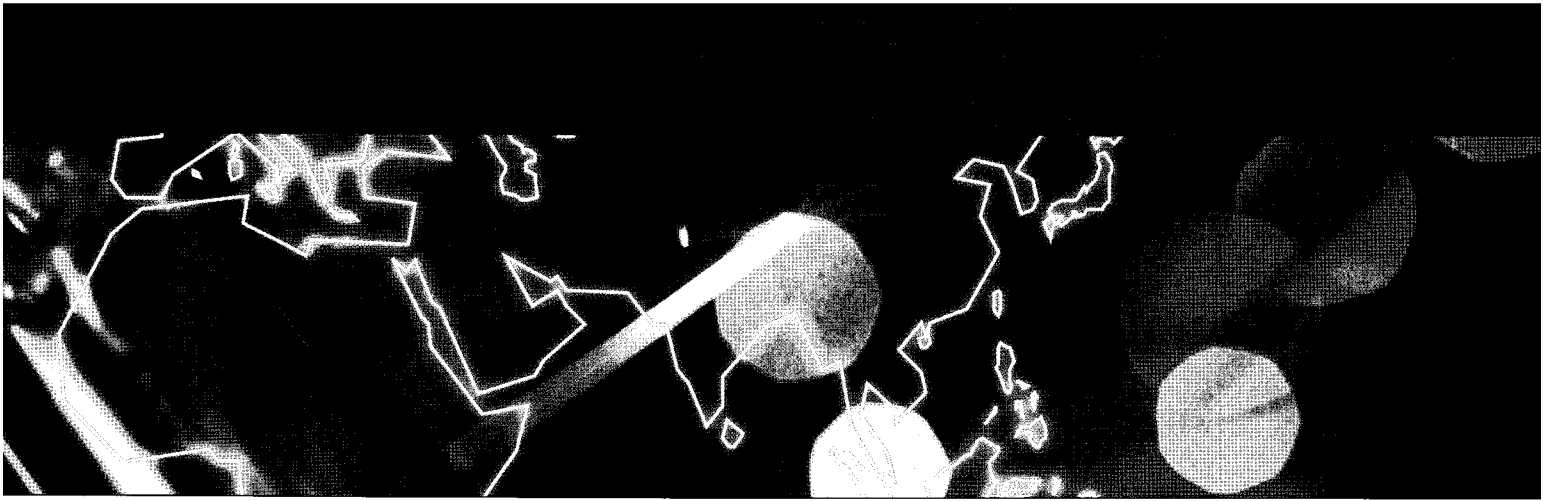
최진영

SK 에너지절약팀의 특화사업은 산업에너지절약과 소모열복원분야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 고객은 정유소나 석유화학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산업소각로에서 증기에너지(150lb, 시간당 30ton)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수행 중에 있다. 또한 매립지 가스의 재활용에 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및 환경관련 사업이 SK 에너지절약팀의 최종목표이다.

■ 러시아

빅토르 코헤르긴(Victor Kochergin)
RUESCO, 국제협력본부장

RUESCO는 최근 72개의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협조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RUESCO의 하청업체들은 주택 및 공공서비스부문 그리고 산업 및 예산활동 분야에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 단체들은 모두 비영리 에너지효율성 단체인 '자원 및 에너지보존 협회'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효율사업제안의 투자결과는 2002년 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측된 100개 이상의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건축 난방시스템 현대화 중앙난방 공급 장치 난방공급체계쇄신 계량기 설치와 에너지공급 제어체계의 구축분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RUESCO는 이미 이번 사업의 주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러시아 내 5개 산업은행으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주택 및 공공서비스부문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과 국유단체, 그리고 다양한 자본단체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놓고 있다.

■ 대만

데니스 왕(Dennis Wang)

CTCI사(대만최대 환경엔지니어링 회사), 부회장



CTCI사는 최근 대만 내의 에너지절약사업의 개념과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 중 몇몇 사업은 대만 내 에너지 절약 사업의 촉진을 위해 경제부처 에너지위 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회의가 네 차례에 걸쳐 타이페이, 신주, 타이중, 카오슝에서 250개 이상 에너지최종소비단체의 참여 아래 4월과 5월에 개최

되었다.

5월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 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에너지절감기술개발센터(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는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 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센터는 10월 31일에 예정된 제2회 대만 에너지절약사업 국제회의와 11월 1일에 있을 사례발표세미나를 준비중에 있다. e

제7회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샵

에너지절약기술워크샵은 우수 에너지절약기술의 보급 및 이용확대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개최 이래 올해로 17회를 맞이하고 있다.

제17회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샵은 에너지절약기술심포지움, 기술강좌, 논문발표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의 방향제시, 전문기술의 보급, 우수기술 사례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 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후 원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일 시 : 2002년 10월 31일 ~ 11월 1일

장 소 : 대전 유성관광호텔 스타볼룸